

<서 평 1>

『인포그래픽 전북학 59Years 석·박사 학위논문 Archive』:
전북학 연구의 기념비적인 텍스트

공종구*

‘서울 중심주의’라는 괴물이 대한민국 전역을 배회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과장이 아니다. 팩트 그 자체이다. 사람과 돈이 서울을 정점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 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면적으로 치면 10% 남짓 정도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는 현재 50%를 넘어섰고, 경제력 집중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나 양상은 당연히 정상이 아닐뿐더러 자연스럽지도 않다. 한 사회나 국가조직 또한 인체의 유기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데 수도권의 ‘과잉’과 지방 ‘결핍’의 극심한 비대칭 구조나 양상이 지속되다 보면 그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삼척동자조차도 알 수 있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교통이나 주택 환경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과부하 문제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병리나 증상들이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서울 중심주의와 연동된 우리 사회의 ‘지방 소멸’의 문제 또한 구체적인 실감의 차원에서 위험 수위로 육박하고 있다. 지방 소멸의 문제 또한 단순한 업무부력이나 과장이 아니라 팩트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에 달하는 106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체의 어느 한 곳에 병집이 발생하거나 아프면 그곳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때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해야만 한다. 그러지

*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mail: kong@kunsan.ac.kr

않고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병집은 다른 곳으로 전이·확산되어 심각한 증병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심각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지방 소멸 현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세계의 혈,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을 일을 서두르지 않아 가래로 막아도 안 될 정도의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정부 또한 백방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의 전북연구원 산하 전북학연구센터(앞으로 ‘센터’로 통일)에서 발간한 『인포그래픽 전북학 59Years: 석·박사 학위논문 아카이브』(앞으로는 『인포그래픽 전북학』으로 통일)가 지니는 의미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러한가?

그 제목과 부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1962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학위논문 가운데 전북학과 관련된 석·박사학위 논문 4,377건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연구보고서이다. 그 방대한 분량을 정리한 작업만으로도 평가할 만하지만 대상 논문을 3개 장과 14개 절 및 부록으로 분류한 후 그래픽 중심의 시각적 입체화 작업을 시도하여 대상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북학 연구의 시계열적 추이나 경향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 점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품과 공이 무척 많이 들었을 이러한 작업의 실무에 참여한 연구진들과 자문위원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헌신에 먼저 경의와 응원을 보낸다. 더불어 이 연구보고서가 앞으로 수행될 전방위적 분야의 전북학 연구의 대장정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개별적인 장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먼저 1장. ‘석·박사 학위논문 아카이브 조사 개요’는 6개의 절을 거느리고 있다. 6개의 절 가운데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전북연구원의 산하 조직인 ‘센터’는 전북학 연구의 컨트롤 타워와 기지 역할을 전담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설립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성취를 보이고 있는 ‘센터’는 현재 기관지 성격을 지닌 『전북학연구』를 5집까지 발간한 바 있으며, 전북학 학술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학총서’ 또한 10권까지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발간한 『인포그래픽 전북학』은 단순한 연구보고서 한 권의 의미를 훌쩍 넘어선다. 설립 이후 이제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센터’가 그 동안의 성과와 성취를 점검한 후 앞으로의 바람직한 진로 모색과 관련한 진단과 처방의 의미를 이 보고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인포그래픽 전북학』이 겨냥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지난

60여 년에 걸쳐 전라북도를 연구의 대상이나 소재로 소환하고 있는 학위 논문의 연구 경향이나 동향의 파악을 통하여 전북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 아직도 고민과 탐색을 하고 있는 전북학의 정체성이나 개념 정립에 영감이나 자극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의 연장선에서 ‘센터’는 여섯 가지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유기적인 상호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기대 효과는 모두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하나는, 지역 및 전북 도민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 방향 및 비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신규 미래 분야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두 가지 목적과 여섯 가지의 기대 효과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전북연구원과 ‘센터’의 존재를 전북의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현재 180여만 명에 이르는 전북의 도민 가운데 전북연구원과 ‘센터’의 존재와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세상 모든 일의 이치가 그러하겠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은 그 대상의 존재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연구원과 ‘센터’의 존재를 전북의 도민들에게 알리는 과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이유이다. 그 다음 중요한 과제는 2019년 설립 이후 의욕적으로 이루어낸 ‘센터’의 연구 성과나 실적을 일반 도민들과 공유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포그래픽 전북학』의 발간이 가지는 의미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발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성과와 실적을 어떻게 전북의 도민들과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센터’에서 의욕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전북학연구』와 전북학 총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전북학연구』에 실린 논문들을 비롯하여 전북학 총서들 가운데는 관련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도민들도 관심과 흥미를 가질 법한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참신한 주제의 텍스트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센터’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과나 실적에 대해 물어보거나 심지어 알고 있는 일반 도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텍스트의 완성은 발간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텍스트의 완

성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독자의 독서 행위이다. 텍스트의 완성성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독자가 읽어주지 않는 텍스트란 하얀 종위 위에 찍힌 검은 활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포그래픽 전복학』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센터’에서 발간한 연구 성과나 실적을 전문가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읽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나 방안에 대한 ‘센터’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전복학을 비롯한 지역학 일반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겠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공유나 대중적인 확산이 전제되지 않은 지역학은 그 존재의 의미가 심각한 의문과 심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일반 도민들은 수동적인 객체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전문가들만의 리그’나 ‘자족적인 폐쇄체계’(autonomous closed system)의 전복학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전문성’과 ‘대중성’의 균형과 조화의 스탠스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 말은 쉽지만 실천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게 바로 지역학이 감당하고 감내해야만 하는 시지포스의 노역이자 운명인 것 같다.

1장 총론에 이어서 2장 ‘전라북도 학위논문 총결산 : 전복 전체 연구 현황’과 3장 ‘지금 우리 지역 연구는 : 14개 시군별 연구 현황’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장은 명실상부, 『인포그래픽 전복학』이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걸맞게 다양한 범주에 걸쳐 그래픽으로 구성된 통계 수치를 동원하여 4,377건의 전복학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의 시계열적 추이와 경향성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4,377건의 대상 텍스트를 시기별 분석, 학교별 분석, 연구 성격 분석, 키워드 분석이라는 4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시군별 연구비중, 시기별 연구 지역, 핵심지역 TOP 4, 시군별 연구 성격의 4개 하위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그래픽을 통한 통계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 하위 범주별 분석의 수준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깊이가 있어 이제까지 전복학의 연구가 시계열적인 층위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수행되어 오고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의 대상 텍스트를 이 정도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전복학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완수해야만 한다는 소명감이나 책임감이 없이는 감히 엄두조차도 낼 수 없는 ‘영끌 작업’의 분량과 공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의 내용이 이제까지 이루어진 전복학 연구의 시계열적 추이나 경향성의 진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발전 방향이나 비전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에 대한 처방 제시가 미흡하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망’ 그래픽의 경우 분석 대상의 실질을 반영한 결과이겠지만 크로스로 착용되는 선의 연결이 너무 복잡하여 선명하게 파악이 안 되는 점 또한 아쉽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출신의 유명한 문인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나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소설 문단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룡 채만식과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시인인 미당 서정주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누락된 부분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보다 연구자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하고 따라서 고민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분야별 연구 성격에서 ‘전북 대상 연구’, ‘비교 연구’, ‘관련 분야 연구’ 상관 없이 모든 부문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비중과 비율이 아주 높게 나온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역사와 문화 중심성의 위계가 암묵적으로 인정받아 왔던 지역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통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전복학의 개념 정립에 대한 ‘센터’가 가진 고민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1장의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다른 학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지역학 일반에 속하는 학문 정체성의 경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문제는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학문의 대상 영역이 비교적 명료한 다른 학문 영역들과는 달리 그 영역의 경계가 아주 느슨하고도 험거운 지역학의 경우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한정하는 작업이 아주 복잡하고도 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해법은 해당 지역학을 통해서 추구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적과 정체성을 먼저 명확하게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작업이 명료하게 정리되면 그와 연동된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복학의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단 전복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적,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전복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과제이다. 아직까지도 전복학의 개념 정립을 모색하는 이유 또한 당연히 그러한 목적이나 가치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아직까지도 모색을 거듭하고 있는 ‘전북학’의 개념 정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단상을 제언하고자 한다. ‘정의 자체 말고 정의내릴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다’라는 명제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정의는 완벽하게 없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정의의 대상은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입체적인 대상인데 비해 정의는 그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들 가운데 선택을 전제로 하는 평면적인 수행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의가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의 모든 특성이나 본질을 완벽하게 포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정의 대상과 정의의 관계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든 정의에는 결락과 공백의 지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게 모든 정의의 운명이자 아포리아이다. ‘언어는 지시대상에 대한 살해(murder)이다’라는 프로이트의 통찰처럼 정의의 유일한 수단이자 도구인 언어 자체가 그러한 운명론적 아포리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의 명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노장철학의 언어관이나 ‘차연’이나 ‘산중’이 방법론적 요체로 기능하는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은 모두 그와 같은 언어의 운명론적 아포리아에 민감하고도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궁구한 미시적 천착의 산물이다.

정의의 속성이 이러하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가장 전통적이고도 일반적인, 따라서 아주 익숙한 정의의 방식은 정의의 대상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서 정의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관행이나 관례를 아주 충실하게 좇아서 전북학도 ‘협의의 전북학’과 ‘광의의 전북학’으로 구분해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협의의 전북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성’을 특권화하면서 전북학의 외연과 내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광의의 전북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연과 내포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정의의 그물코를 아주 성글게 설계한 광의의 전북학은 너무 지나치게 문호를 개방하다 보면 과유불급, 무늬만 전북학과 유사할 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도저히 전북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텍스트들도 넣어야만 하는 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인포그래픽 전북학』의 부록에 수록된 목록을 보더라도 그러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정의의 그물코를 아주 촘촘하게 설계한 협의의 전북학의 경우 이 또한 과유불급, 역사와 문화의 특권적인 지위를 너무 따지다 보면 의외의 소중한 성과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법은? 변증법적 지양과 통일을 통한 절충과 중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외 학문 분야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텍스트의 실제 방향이나 내용 등을 전북의 정체성이나 미래 발전 방향 및 비전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꼼꼼하게 따진 이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단순히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소환하는 연구는 전북학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명실상부한 전북학의 이름에 값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만의 특수성이나 정체성을 탐색하고 천착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부록에 수록된 4,377건의 논문들 가운데 「병원조직의 구성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중학생들의 음악적 취향에 대한 조사 분석: 전주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등과 같은 논문들을 전북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대상 지역을 달리 해도 연구의 결과는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 전북학 학위논문 연구 성과 목록’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부록은 ‘조사 자료’, ‘대분류·중분류 네이버 학술정보’, ‘지역 코드 검색어’의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하위 항목 가운데 양적 질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료 조사이다. 자료 조사 목록에는 1962년부터 2021년에 걸친 59년 동안의 시기에 생산된 전북학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 4,377건의 세부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자료 조사와 수집 과정도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작업이지만 이 자료를 하나하나 일일이 수작업으로 타이핑한 연구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말로도 갈음이 안 될 것 같다. 전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연구자 입장에서 무조건 감사할 따름이다. 다른 성과를 떠나서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인포그래픽 전북학』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연구책임자와 두 사람의 공동연구원의 작업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일구어낸 연구실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경의와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옥의 티’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고 한다. 조사 자료의 목록에 수록된 자료들은 학위 수여연도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 구조 하나만으로는 이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분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지만, 이 자료들을 연구자 이름의 가나다순과 연구주제별로

분류하여 배열하는 항목을 더 추가했다라면 금상첨화, 텍스트의 완성도와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더욱이 부록에 수록된 전북학 관련 목록들은 전북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나 앞으로 전북학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오히려 2, 3장보다 더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인포그래픽 전북학』의 발간은 전북학의 대장정에 척후로서의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앞으로의 대장정에는 술한 우여곡절과 예기치 못한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연구자 입장에서 지치거나 위축되거나 하는 일 없이 대장정을 완주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전북학의 대장정에서 『인포그래픽 전북학』이라는 기념비적인 텍스트를 출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더불어 이 텍스트가 전북학의 후속 연구를 자극하고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센터’가 이번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열정과 헌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전북학의 대장정에 든직한 길라잡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